

8/28 월요일

아침의 누림

롬 9:4-8, 11-16

4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들의 자격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신 것과 봉사와 약속들이 있습니다.

5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육체로 말하자면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입니다. 아멘.

6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헛되게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인 것은 아니며,

7 또한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그들 모두가 그의 자녀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삭에게서 나와 너의 씨라고 불릴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8 그것은 육체의 자녀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은 아니며, 약속의 자녀들만이 씨로 여겨진다는 뜻입니다.

11 쌍둥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고 부르시는 분께 있다는 것을 확고히 하시려고),

12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길 것이다.”라고 하셨으니,

13 성경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14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불의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5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16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달음질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선택·우리의 운명 (1)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 1 장부터 8 장까지를 다루었다. 우리는 9 장부터 11 장을 삽입으로 생각하고 12 장을 8 장의 연속으로 생각할 수 있다. 생명의 과정이나 생명의 실행 면에 있어서 이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바울의 관념에서는 이 세 장이 삽입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세 장 안에는 1 장부터 8 장까지와 12 장부터 16 장 사이의 연속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세 장은 어느 의미에서는 삽입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8 장부터 12 장 사이의 연속을 이룬다.

1. 부르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운명이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완전히 정해졌다. 이 선택과 운명은 사람의 행위가 아닌 부르시는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우리의 선택은 절대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 점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9 장 1 절부터 13 절을 읽어야 한다.

~~~

5 절은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이라 말한다. 조상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밖의 사람들이다. 인성(人性)으로는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나셨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말한다. 바울은 글을 쓰다가 이 시점에 이르렀을 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너무 충만해서 그의 마음 안에 있던 것을 쏟아 부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계시고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고, 그 사실을 충분히 깨닫고, 귀중히 여겨야 한다. 그분은 비록 육신으로 유대인의 족속에서 나셨지만 한정지을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사야 9 장 6 절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 그 이름은 …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그분의 신성을 찬양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원히 경배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6 절). 3 절에서 바울은 그의 친척들이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 6 절에 와서 그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해 말했다. 3 절에서 그는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라고 말하기까지 필사적인 기도를 했다. 6 절에서 그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경륜에서는 이스라엘에게서 났다 해서 모두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났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것은 아니다. 그들은 모두 유대 종교에 속한다. 겉으로 보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포함한,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것들이 모두 있었지만 그들 모두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7 절). 6 절과 7 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의 빛 가운데서 사실을 밝히 본다. 오직 이삭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씨에 속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진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외에 이스마엘이라는 또 하나의 아들이 있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지만 그와 그의 후손들인 아랍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지 않았다. 그들은 육신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질 수 없다. 오직 이삭과 그의 후손들만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며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진다.

8 절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고 계속한다. 하나님의 경륜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서로 여겨지는 약속의 자녀이다. 아브라함의 씨라 해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니다. 육신에 속한 출생은 하나님의 자녀로 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듭나야 한다(요 3:7). 「약속의 자녀」라는 말은 두 번째 출생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오직 두 번째 출생에 의해서만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서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

II. 하나님의 긍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14-15 절). 하나님이 『내가 ... 하리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분과 따져서는 안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며 우리에게는 그분의 주권이 없다. 우리는 그분과 따지면서 『왜 당신은 야곱은 사랑하면서 에서는 미워하십니까?』라고 물을지 모른다. 하나님은 『나에게 따지지 말라. 나는 그렇게 하리라.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리라. 모든 것은 나의 뜻에 달려 있다.』라고 대답하실 것이다.

긍휼과 불쌍히 여김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것은 구별하기 어렵다. 불쌍히 여김은 긍휼과 매우 비슷한 것이지만 나는 불쌍히 여김이 긍휼보다 더 깊고 더 자상하고 더 다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 구절에서는 긍휼에 불쌍히 여김이 합해져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강하게 한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16 절). 긍휼은 은혜보다 정도가 더 높은 것이다.

만일 내가 좋은 상태에 있고 나의 위치가 당신보다 모자라지 않을 때 당신이 나에게 선물을 준다면 그것은 은혜이다. 그러나 내가 가련한 상태에 있고 나의 위치가 당신보다 훨씬 떨어질 때 당신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준다면 그것은 긍휼이다. 만일 내가 당신의 다정한 친구로서 당신에게 올 때 당신이 나에게 성경책 한 권을 선물로 준다면 그것은 은혜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가련하고 더러운 거지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당신이 나에게 10 달러를 준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긍휼이다. 그러므로 긍휼은 은혜보다 정도가 더 높은 것이다. 은혜란 그것에 상응하는 상황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긍휼은 그보다 훨씬 더 이상이어서 가련하고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상황에 주는 것이다. 우리의 타고난 상태는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그분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다. 우리의 자격으로는 그분의 긍휼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9 장 15 절은 『내가 은혜로 대할 자를 은혜로 대하고』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라고 말한다. 당신은 야곱은 선한 것이 전혀 없고 아주 교활하고 간교한 사람이었고, 에서가 그보다 훨씬 더 나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당신 생각이 옳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긍휼을 보이셨다. 야곱은 가련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하나님의 긍휼은 사람의 좋은 상태가 아닌 오히려 사람의 가련한 상태에서 보여진다. 긍휼은 그분의 은혜보다 더 큰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우리 중의 누구도 그분의 은혜에 상응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없다. 우리는 너무도 불쌍하고 가련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했다. 우리를 그분의 은혜 안으로 이끈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그분의 긍휼에 대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 지금도, 구원을 받고 풍성한 그분의 생명 안에 참여한 후에도 우리는 어느 면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 장 16 절은 우리가 먼저 긍휼하심을 받은 후에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아, 우리에게는 그분의 긍휼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는 만큼 하나님의 긍휼을 귀히 여겨야 한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격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다.

8/29 화요일

아침의 누림

롬 9:20-24, 29-33

20 그러나 그대가 누구이기에 사람으로서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합니까? 빚어진 것이 빚은 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21 토기장이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위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22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노를 나타내 보이시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지만, 멸망받아야 마땅한 진노의 그릇들을 오래 참으시면서 너그러이 대하셨을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

23 하나님께서 또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

24 이 그릇은 우리, 곧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29 또 이사야가 전에 말했던 대로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벌써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라.”

30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던 이방인들이 의, 곧 믿음에서 난 의를 획득했습니다.

31 그러나 의의 율법을 추구하던 이스라엘은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32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위로 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33 이것은 성경에 “보아라, 내가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롬 10:1-3

1 형제님들, 내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과 이스라엘을 위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2 나는 그들을 위해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지만, 그 열정은 온전한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3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들의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III. 하나님의 주권에 관하여

바울은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라고 계속한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 이시다. 그분의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자인 그분께 아무 할 말이 없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19-21 절)라고 묻는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덩이들이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로서 진흙에 대해 권한이 있다. 자신의 뜻에 따라 그분은 하나는 귀히 쓸 그릇으로 만들 수 있고 또 하나는 천히 쓸

그릇으로 만들 수 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에 달려 있다.

로마서 9 장 21 절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밝힌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을 계시하는 유일한 말씀이다. 이 구절이 없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사람을 지어 하나님을 담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삼기 위한 것임을 깨닫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내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철저히 이해해야 한다. 고린도후서 4 장 7 절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말한다. 우리는 질그릇들이요, 하나님은 보배이며 내용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미리 정하심에 따라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를 그분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하셨다. 디모데후서 2 장 20 절과 21 절도 우리를 귀히 쓰는 그릇이라고 말함으로써 같은 내용을 전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쓰심에 거룩하고 합당하게 되기 위해 모든 천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한다. 그러나 귀히 쓸 그릇이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이 그분을 담는 금홍의 그릇들을 창조함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알게 하시는 것은 그분의 주권이다. 이것은 깊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분의 선택의 근거이다. 그분의 선택은 그분의 주권에 달려 있다.

~~~

하나님의 선택에는 목적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담고 영원히 나타내는 많은 그릇들을 얻는 것이다. 우리 중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의 초점을 놓치고 그 목적을 단지 우리를 구원하여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나타날 뿐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그릇들로 삼기 위해 나타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로 그분을 받아들이어 그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고 생명 공급이 되어 그와 우리가 연합하여

우리가 그의 어떠함을 나타냄으로써 그가 우리 안에서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도 또한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영원한 목적이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영원한 목적이기도 하다.

이 부분의 말씀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쓰여지는 거의 정점(頂點)을 보여 준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종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왕들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담고 나타내는 그릇들로 쓰여지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들로 쓰여지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을 담는 그릇이요 그분의 표현이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내용이며 우리의 생명이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으로 인하여 살게 하기 위해 우리 안에 사신다. 그분과 우리, 우리와 그분은 결국 생명 안에서와 본질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이것이 그분이 그분의 주권을 따라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다. 이것은 또한 그분의 선택에 따른 우리의 운명이기도 하다. 이 운명은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나타날 것이다.

25 절과 26 절은 어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고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호세아의 글에서 인용된 말씀이다. 27 절부터 29 절까지는 모든 이스라엘이 선택된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남은 자, 곧 주께서 남겨둔 씨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사야의 글에서 인용된 말씀이다.

~~~

IV.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은 또한 믿음의 의(義)로 말미암는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30 절). 이방인들은 의를 좇지 않았지만 의를 얻었다. 이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에서 난 의이다. 이방인들은 믿음에서 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에 동참했다. 『의의 법을 좇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31-33 절). 우리는 결코 의의 법을 좇아감으로써 의에 이를 수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성취하기를 추구했지만 그리스도이신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에 부딪혔다. 그러나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것과 연결하여 우리는 또한 10 장의 처음 세 구절을 읽을 필요가 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대해 극진한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합당한 지식이 결여될 수 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을 과거에도 놓쳤으며 지금도 놓치고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의(義)인 그리스도 자신을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놓쳤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율법을 지키거나 선을 행하는 노력, 즉 자기 의를 세우려는 인간의 모든 노력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놓치게 할 것이다.

- 6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겠다는 뜻입니다.
- 7 혹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무저갱으로 내려갈 것인가?’라고 하지도 마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모셔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 8 그러면 이 의가 말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그대에게 가까이, 곧 그대의 입에 있으며 또 그대의 마음에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 9 그대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 10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 11 성경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라고 말합니다.
- 12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시기 때문이니,
- 13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V.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A.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로마서 10 장 4 절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이것은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고 끝마치셨음을 의미한다. 그분은 율법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마 5:17). 율법을 이룸으로써 그분은 율법을 마치고 종결지었다. 그리스도가 율법을

종결지은 결과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율법을 완성하고 종결지었다. 율법은 그분 안에서 끝났다. 율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났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기만 하면 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 율법을 소중히 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율법이 그리스도에 의해 완전히 완성되고 종결되었음을 알지 못했다. 만약 이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는 그들의 노력을 중단했을 것이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 또다시 노력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그들의 의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오늘날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원칙은 동일하다. 구원받은 후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선하게 행동하려고 결심한다. 그 결과 그들은 자라나 자신이 만든 율법이 되는 규정들을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 규정들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가 모든 규정의 마침과 종결이시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 그리스도를 그들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깨닫지 못한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 의는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산 의가 되기 위해 율법을 종결지은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한다. 로마서 10 장은 그리스도에 관해 너무도 많은 것을 계시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이고도 산 의이신 그분에게 참여하고 그분을 누리는 법을 알 수 있다.

B. 성육신되고 부활한 그리스도

5 절부터 7 절까지를 읽어보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8/30 수요일

아침의 누림

롬 10:4-13

4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사람을 의에 이르게 하시려고 율법의 완결이 되셨습니다.

5 모세는 율법에서 난 의에 관하여,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살 것이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바울의 글은 매우 깊다. 겉으로 보기에 이 구절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을 언급하지 않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둘이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바울은 성육신과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로마서의 이 부분을 쓸 때 그 둘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바울은 신명기 30 장 12 절을 인용한다. 『...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꼬 할 것이 아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리스도가 그의 성육신으로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뿐 아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라고 물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음부에 내려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급하는 것이다. 음부에 내려간다는 것은 죽어서 음부에 들어감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는 죽었을 때 음부에 내려갔으며 부활함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로부터, 즉 음부에서 올리어졌다. 그리스도는 성육신과 부활을 통과한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과정을 거친」 그리스도, 곧 성육신되고 부활한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성육신부터 부활까지의 긴 과정을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이 요구하는 모든 것과 우리가 그분을 먹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성취했다. 그분은 사람으로 성육신된 하나님이었으며 사람인 그분은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 주는 영으로 변형되었다(고전 15:45). 이제 그분은 부활

안에서 생명 주는 영이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C. 당신에게 가까이 있는 그리스도

바울이 8 절에서 한 말에 주의하기 바란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부활한 그리스도는 사신 말씀으로 우리와 가까이 있고 우리 입에 있으며 우리 마음에 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갑자기 그리스도에 대한 말로 「말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것은 이 말씀이 분명 그리스도 자신임을 가리키는 것이다. 부활한 그리스도는 생명 주는 영으로서 산 말씀이시다. 이것은 말씀이 그 영이라는 신약의 계시에 해당된다.

~~~

성육신과 부활로 과정을 거친 후 그리스도는 오늘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는 주님이며 땅에서 움직이는 생명 주는 영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와 가까이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은 매우 가까이 있어, 우리 입에까지 있으며 마음에까지 있다. 누구도 이분보다 더 가까울 수 없다. 그분은 누리기엔 매우 편리하다. 누구든지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부르는 자는 그분을 얻을 수 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성취하셨고, 모든 과정을 통과하셨다. 그분은 이제 땅 위에서 운행하고 있으며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분이다.

### D. 믿고 부르는 그리스도

9 절부터 13 절을 읽어보자.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라고 말한다. 「에」라는 말은 헬라어 전치사로 「결과를 낳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은 결과는 의(義)요, 입으로 시인한 결과는 구원이다. 의롭게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얻기 원한다면 주 예수를 믿어야 하고, 구원받기 원한다면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그를 시인해야 한다.

~~~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그러나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구원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풍성을 영접하는 길이다. 주님은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그분을 부를 때 우리는 그분의 풍성에 참여하고 그 풍성을 누린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풍성에 참여하고 그 풍성을 누리기를 원하는가? 원한다면 잠잠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그분을 부르라. 최근 몇 년 동안 주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문제에 관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계시하셨다. 10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이에 대해 별로 아는 바가 없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히셨음을 감사한다. 우리는 로마서 10 장을 좋아하고 특히 12 절을 소중히 여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 절은 복음을 전할 때 무수히 많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구절을 복음 전하는 데 뿐 아니라 12 절과 함께 모든 빈 그릇들을 신성의 풍성으로 채우는 데 사용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입을 넓게 열고 주님을 부른다면 신성의 풍성이 당신의 분깃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빈 그릇을 채우는 길이 있다. 우리에게 빈 그릇으로 채워지기 위해 그분을 부르는 입이 있으며, 그분을 믿고 그분을 붙잡는 마음이 있다.

성경은 주님을 부르는 것이 주님을 먹고 누리는 길임을 밝히 계시한다. 신명기 4 장 7 절은 주님이 『그를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한다(미국 표준역 1901 년판 참조). 시편 145 편 18 절은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부르는 모든 자 곧 신실하게 자기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라고 말한다(미국 표준역 참조). 시편 18 편 6 절과 118 편 5 절에서 다윗은 환난과 고통 중에 주님을 불렀다. 시편 50 편 15 절에서 주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시편 86 편 7 절에서 다윗은 그렇게 했다. 시편 81 편 7 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했음을 말하고(출 2:23), 주님은 그들에게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다(10 절). 시편 86 편 5 절은 『주는 선하사 사유(赦宥)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니이다』라고 말한다. 시편 116 편 3 절과 4 절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라고 말한다(미국 표준역 참조). 같은 시편 13 절은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라고 말한다. 구원의 잔을 들기 위해, 즉 주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누리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이사야 12 장 2 절부터 6 절까지에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노래이며,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 수 있다고 말한다. 주님의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는 방법, 즉 주님을 우리의 구원으로 누리는 길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찬송하며, 부르짖고 외치는 것이다. 이사야 55 장 1 절부터 6 절까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는 놀라운 부탁이 있다.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을 불러서 물로 나아오라고 하시고, 포도주나 젖이나 좋은 음식 등 주님의 양식의 풍성을 누리라고 하시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라고 하신다. 이렇게

하는 길은 주님을 추구하고 가까이 있는 그분을 부르는 것이다. 이사야 64 장 7 절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분발하여 그분을 붙잡을 수 있다고 말한다.

예레미야애가 3 장 55 절부터 57 절까지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며, 우리가 그분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호흡이요 부르짖음임을 분명히 계시한다(미국 표준역 참조). 이로써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분께 부르짖는 것일 뿐 아니라, 영적인 호흡을 체험하는 것이며(출 2:23), 그 호흡을 통해 우리 속에 모든 고통과 아픔과 억눌렸던 것들을 내쫓는다는 것이다. 예레미야는 깊은 구덩이, 곧 지하 감옥에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는 영적인 지하 감옥이나 구덩이, 혹은 어떤 억눌림 안에 있을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속에 있는 무거운 것을 내쫓으로써 깊은 구덩이에서 해방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속으로부터 소극적인 것들을 내쫓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힘과 누림과 위로와 안식이 되는 그분의 모든 풍성과 함께 주님 자신을 들이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주님의 풍성을 함께 먹는다. 그러므로 로마서 10 장 12 절에서 바울은, 『주님은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라고 말한다. 오늘 주님은 부활 안에서 우리가 영접하도록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누리기에 편리하고 풍성한 분이다. 우리는 아무 때나 다만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 그분을 부름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모든 풍성을 함께 먹고 누릴 수 있다.

주님을 부르는 것은 단순히 그분께 기도하는 것과는 다르다. 「부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사람을 자극시키고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소리 없이 할 수 있지만, 주님을 부르는 것은 그분께 외치거나 들리도록 말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창세기 4 장 26 절에서 「부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첫째로 「부르짖음」을 의미한다. 이사야 12 장

4 절과 6 절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소리를 높이고 부르짖는 것」임을 보여 준다. 예레미야애가 3 장 55 절과 56 절도 같은 것을 계시한다. 즉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내가 주님을 불렀으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했다(삼하 22:7, 미국 표준역 참조). 주님을 부르는 것은 그분께 부르짖는 것이다.

~~~~~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말했다(고전 1:2). 이것은 초기의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것을 실행했음을 가리킨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고 권면했다(딤후 2:22). 그러므로 우리도 그것을 실행해야 한다. 구약의 성도들은 매일 주님을 불렀으며(시 88:9), 평생에 그분을 불렀다(시 116:2).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더 실행하여 「깨끗한 마음으로」(딤후 2:22), 「깨끗한 입술로」(습 3:9) 주님을 불러야 한다. 이것을 실행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풍성을 함께 가질 것이며 그 풍성을 누릴 것이다. 주님을 부르는 것은 구원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모든 풍성을 가진 주님을 누리기 위한 것이다.

#### 8/31 목요일

#### 아침의 누림

롬 11:2-5, 16-18, 29, 32, 36

2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고발했습니다.

3 “주님, 그들이 주님의 신언자들을 죽였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만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노리고

있습니다.”

4 그러나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칠천 명을 남겨 두었다.”라고 하셨습니다.

5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을 받은 남은 이들이 있습니다.

16 드러진 반죽 덩어리의 첫 부분이 거룩하면 반죽 덩어리 전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거룩합니다.

17 그러나 몇몇 가지들이 꺾어졌고, 야생올리브나무인 그대가 꺾어진 가지들 자리에 접붙여져서 올리브나무의 기름진 뿌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면,

18 그 가지들에게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한다 해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9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과 부름은 취소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2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36 왜냐하면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와서, 주님을 통하여 있고, 주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 오늘의 읽을 말씀

기독교가 아무리 형편없이 타락되었다 하더라도 수십, 수백만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따로 예비한 남은 자가 있음을 우리는 믿는다.

~~~~

교만한 말은 아니지만 나는 자신을 주님이 예비한 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당신은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 과거 여러 해 동안 나의 생각은 엘리야의 생각과 같았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자. 나는 결국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그분에게 남겨두셨음을 발견했다.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 남은 자를 예비해 두셨다. 실망하지 말라.

~~~~

### II. 이스라엘이 실족함으로 구원받은 이방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로마서 9 장에서는 진흙덩이에 비유되며 로마서 11 장에서는 과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가루덩이에 비유된다. 당신은 어느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흙덩이가 되고 싶은가, 가루덩이가 되고 싶은가? 나는 가루덩이가 되기를 더 좋아하지만 진흙덩이가 되는 것도 좋아한다. 그 이유는 진흙덩이가 그리스도를 담는 긍휼의 그릇들을 만드는 데 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 장 7 절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말한다. 또한 디모데후서 2 장 20 절은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어 ... 귀히 쓰는 것도 있다』고 말한다. 로마서 9 장의 질그릇은 로마서 10 장에서 계시된 대로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채워진다. 디모데후서 2 장 20 절에 있는 그릇들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디모데후서 2 장 22 절은,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귀히 쓰는 그릇들이 채워지는 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로마서 9 장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들로 만들어지는 진흙덩이임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나는 가루덩이, 곧 떡덩이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한다. 진흙에는 생명이 없지만 떡덩이는 생명의 문제이다. 즉 떡덩이는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진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들로 만들어지는 데 쓸모가 있지만 떡덩이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쓰여진다. 그것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음식으로 하나님께 드러진다. 생명이 없는 진흙덩이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 우리는 떡덩이 안에서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산 요소를 가질 수 있다.

곡식가루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요, 뿌리는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이다. 로마서 11 장 17 절은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이라고 말한다. 창세기 생명의 수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에 올 때 우리는 그들이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임을 알게 될 것이다. 감람나무 전체는 그 진액에 달려 있다. 주님을 찬양하자!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하나님이 기르신 감람나무에 접붙임되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들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누림이다. 하나님은 곡식가루를 누리고 우리는 뿌리를 누린다. 곡식가루와 뿌리 모두 식물의 생명, 곧 하나님과 사람을 만족시키는 생명이다. 밀과 감람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누림과 만족를 가져온다. 주님을 찬양하자! 또다시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깊은 기자(記者)인가를 보게 된다. 로마서에는 피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

17 절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인 우리가 돌감람나무였다가 『접붙임이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다』고 말한다. 접붙임은 생명에 속한 것이다. 야생의 나무 가지가 기른 나무 안으로 접붙여진다는 것은 기른 나무의 생명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이방인들인 우리가 종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그리스도인 뿌리의 생명을 받는 것이다.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접함이 없이 그들의 이방 종교에서 기독교 종교로 전향했다. 그들은 결코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기르신 감람나무 안으로 접붙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접붙임되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을 누린다. 주님을 찬양하자!

~~~~

IV.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찬미

여기에 와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찬양을 드린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러서 값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33-36 절). 로마서 9 장부터 11 장 까지에서 바울은 마치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한 지도를 우리에게 준 것 같다. 하나님은 세 단계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신다. 과거에 있어서는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나왔다. 현재에 있어서는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는다. 미래에 있어서는 만물이 그분께 돌아갈 것이다. 만물이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게 되었고 현재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으며 장래 그분께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분 자신과 그분의 택함에 따른 것이지 그밖의 다른 것에 의한 것이 아니다. 만물이 그분께 속하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한 것이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9/1 금요일

아침의 누림

롬 12:1-8

1 그러므로 형제님들,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거룩하고 살아 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합리적인 봉사입니다.

2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3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4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5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입니다.

6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각각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신언하십시오.

7 섬기는 일이면 그 섬기는 일에, 가르치는 사람이면 그 가르치는 일에,

8 권유하는 사람이면 그 권유하는 일에 신실하십시오. 나누어 주는 사람은 단순하게, 인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하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즐겁게 하십시오.

오늘의 읽을 말씀**몸의 생활을 실행함으로 인한 변화 (1)**

왜 바울은 로마서를 썼는가? 그는 단지 칭의를 위해 쓴 것이 아니고, 성화를 위해 쓴 것도 아니고, 심지어 영화롭게 함을 위해 쓴 것도 아니다. 로마서는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교회 생활을 위해 쓰여졌다. 로마서의 완성은 교회이다. 바울은 교회 문제에 있어서 너무도 강하고 풍성하기 때문에 다섯 장에 걸쳐 그것을 강조했음을 주님께 찬양하라. 그는 다섯 장에 걸쳐 놀랍게 교회 생활을 다루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교회 생활을 교리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매우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제시한다. 로마서 15 장과 16 장에 올 때 우리는 바울이 교회를 교리적으로가 아닌 체험적이고도 실제적으로 기술하고 제시하는 것을 발견한다.

만일 당신이 로마서 12 장부터 16 장까지의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다섯 장들을 단지 그리스도인의 행위에 관한 권면과 가르침의 장들로 생각할 것이다. 만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성경의 이 부분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아직 천연적인 관념을 갖고 있음을 증명한다. 우리는 천연적인 관념에 따라 거룩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대부분의

기독교 교사들은 로마서 12 장부터 16 장까지를 믿는 이들의 행위를 기술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 좋은 그리스도인의 행위를 보여야 한다고 말한다. 20 여 년 전, 내가 거의 천 명 가까이되는 사람들과 함께 로마서를 철저히 연구했을 때 나는 여전히 이런 천연적인 관념에 집착했었다. 그런 연구에서 나도 로마서 12 장부터 16 장까지의 말씀이 믿는 이들의 행위를 기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수년 동안 로마서를 반복해서 연구한 후 나는 자신에게, 『이 사람아, 거룩하고 신성한 계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너는 얼마나 천연적이었느냐!』고 말했다.

겉으로 볼 때 로마서의 마지막 다섯 장은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를 기술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믿는 이들의 행위 중에서 주된 항목, 주된 방면은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 생활이다. 교회 생활, 곧 몸의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행위의 주요 구조이다. 구원받은 후 믿는 이들의 행위는 첫째로 교회 생활과 관계된다. 당신은 교회 생활이 우리생활의 구심 퍼센트임을 깨닫는가? 우리는 「교회 생활함」(Churching)이라는 새로운 단어까지 만들어 냈었다. 매일 매일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밤낮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간증할 수 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 시간과 돈과 힘을 많이 소비한다. 우리는 시간이나 금전이나 기력에 주의하지 않고 오직 교회를 주의한다. 우리는 항상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썼을 때 이러한 교회 생활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었다. 그는 행위에만 주의하지 않았다. 그의 주된 관심은 교회 생활에 있었다. 우리는 5 장부터 8 장까지 있는 성화의 부분에서 계시된 과정을 거친 생명을 실행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생명 안의 변화는 생명의 실행을 위한 것이고 생명의 실행은 주로 교회 생활 가운데 행해진다.

~~~



## 1. 몸의 생활을 위한 변화

### A. 변화

12 장 1 절과 2 절을 보기 전에 나는 변화의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변화란 좋은 낱말이다. 헬라어로 이 단어는 바뀐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흠정역은 고린도후서 3 장 18 절에 있는 이 단어를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지 않고 「바뀐다」로 번역했다. 그러나 흠정역은 로마서 12 장 2 절에서 같은 헬라어 단어를 「변화를 받는다」로 번역했다. 그 헬라어 단어를 「바뀐다」로 번역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 변화란 단지 바뀔을 의미할 뿐 아니라 어떤 실체가 본성이나 형태에 있어서 바뀌는 것이다. 영어에서 변화(transformation)라는 단어는 본성이나 형태에 있어서 바뀔을 의미한다. 이런 종류의 변화는 신진대사의 변화이다. 그것은 단지 밖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외적인 형태 뿐 아니라 내적인 성분이 바뀌는 것이다. 이런 바뀔은 신진대사의 과정에 의해 발생한다. 신진대사의 과정에 있어서, 비타민이 많은 어떤 유기적 요소가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유기적인 생명 안에 어떤 화학적 변화를 가져온다. 이 화학적 반응은 우리 자신의 성분을 어떤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꾸어 놓는다. 이것이 변화이다.

가령 어떤 사람의 안색이 창백하다 하자. 만일 어떤 다른 사람이 그의 핏기 없는 안색을 고치기 위해 그의 피부에 색을 칠한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밖의 변화일 뿐 유기적인 변화나 생명의 변화가 아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참으로 혈색 있는 얼굴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필요한 유기적 요소가 함유된 음식을 매일 몸 안으로 흡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당신의 몸은 살아 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어떤 유기적인 실체가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신진대사의 과정에 의해 어떤 화학적 합성물이 유기적으로 형성된다. 이 내적 과정은 점차 당신의 얼굴의 혈색을 바꿀 것이다. 이런 변화는 밖의 변화가 아닌 안의 변화요, 신진대사의 과정으로 비롯된 변화이다.

성경에 의하면 이 신진대사에 의해 바뀌어지는 것을 변화라고 한다. 변화의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자신에 더해진다. 유기적이고 영양 많은 그분의 생명이 우리 속을 적실 때 영적인 화학적 합성물이 형성된다. 이것은 본성이나 형태에 있어서 우리의 성분을 바꾼다. 이것이 변화이다. 이것은 밖의 고침이나 외적인 조정이 아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유기적인 요소 안에 이루어지는 내적인 신진대사의 변화이며 주(主) 그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생명과 함께 이루어지는 변화이다(고후 3:18).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신성한 요소가 우리 안으로 역사된다. 만일 우리가 로마서 12 장부터 16 장까지를 다룰 때 변화에 관한 이와 같은 합당한 이해를 명심한다면 이 부분의 말씀이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으로 생각하려고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깨달을 것이다.

~~~~~

B. 우리 몸을 한 제물로 드림

2. 가장 합당한 제사장의 봉사

자신을 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가장 합당한 봉사이다. 위에 언급한 「드리다」, 「제물」이라는 단어들은 「합당한 봉사」가 제사장의 봉사임을 가리킨다.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합당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 교회 생활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교회 생활 외에 다른 것을 실행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교회 생활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이다. 2 달러를 세상적인 일이나 오락에 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교회 생활에 2 백만 달러를 사용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만일 나에게 100 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것들을 모두 교회 생활을 위해 바치고 싶다. 그러나 나는 내 생명의 가장 작은 한 조각도 세상적인 것들에는 바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보 같은 짓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교회 생활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 봉사인가! 나는 40 년 이상 주님의

일을 해 왔지만 조금도 후회함이 없음을 간증할 수 있다. 나는 교회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뭉는다. 교회 생활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교회 생활을 위한 나의 사역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늘에 있는 느낌을 갖는다. 이것이 얼마나 합당한 봉사인가!

바울은 교회 생활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을 때 믿는이들에게 그들의 몸을 드리라고 간구했다. 그 이유는 사람에게서 몸보다 더 실지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의 몸이 교회 생활 안에 있지 않다면 당신 자신이 얼마나 교회 생활을 위하는지를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형제님, 나는 당신과 하나입니다. 나는 사업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할 수 없지만 당신이 하고 있는 것과 하나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너무 피곤해서 집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집회에 가십시오. 그러면 나는 집에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너무 피곤해서 육신은 집회에 갈 수 없지만 내 마음과 영은 당신과 함께 집회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하나의 속임수이다. 우리는 우리 몸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 몸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다. 성도들이 모두 다 너무 피곤해서 집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하자. 집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의 몸들을 드리라고 간구했다. 만일 당신이 진정으로 주님의 목적을 위한다면 당신의 몸을 드려야 한다. 비록 집회 시간 내내 존다 하더라도 집회에 오는 것이 좋다. 집회에 전혀 오지 않는 것보다 집회에 와서 조는 편이 낫다. 당신은 집회에 참석해서 내내 졸다가 마지막 몇 분 동안은 눈을 뜰지 모른다. 아마 마지막 5 분 동안이라도 눈을 뜬다면 당신은 감동을 받고 큰 도움을 받을 것이다. 나는 이와 같은 경우를 많이 알고 있다.

9/2 토요일

아침의 누림

롬 12:9-18

9 사랑에는 위선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몹시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10 형제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십시오.

11 열심을 내어 게으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12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견디며, 기도에 꾸준히 힘쓰십시오.

13 성도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손님 대접에 힘쓰십시오.

14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15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16 서로 같은 생각을 갖고, 교만한 생각을 품지 말고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마십시오.

17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존경할 만한 일들을 미리 생각해 두십시오.

18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것이라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오늘의 읽을 말씀

IV. 우리의 은사를 사용함으로

B. 한 몸에는 다른 기능을 가진 많은 지체들이 있음을 깨달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4-5 절, 회복역 참조). 우리는 한 몸의 많은 지체들이 다른 기능을 가졌음을 깨달아야 한다. 두 명의 젊은 자매들이 나이에 있어서는 매우 비슷할지 모르나, 여전히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한 자매가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자매는 할 수 없다. 우리가 모두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자신을 너무 높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존경할 것이다. 나는 많은 젊은 형제들이 서로서로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형제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몸의 지체들이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의 얼굴로 비유된다. 여러분의 얼굴에는 눈, 귀, 코, 입술이 있다. 「눈」이 「코」 형제에게,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당신이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 코 형제는, 『예, 눈 형제님,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또한 당신이나 나는 귀 형제가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아마 귀 형제는 『형제들, 당신들이 옳습니다. 그러나 입술 형제는 우리 중의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얼굴은 온 몸의 사실을 나타낸다. 즉 우리는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으나, 각 지체는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교회 생활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나는 집회 안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지체들을 볼 때 매우 기쁘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C. 서로 연결된 지체로서

5 절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이지만 한 몸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많은 지체들이지만 분리된 많은 단위가 아니다. 지체들인 우리는 살아 있고 기능을 가진 몸이 되기 위해 서로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우리가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떨어진 지체들이요, 몸의 생활은 실제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 5 절에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 말할 때 「서로의」라는 말은 분리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을 뜻한다. 그것은 여러분은 어떤 지체이고 나는 또 다른 지체라는 뜻이다. 여러분이 코이면 나는 눈이고 다른 자매는 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서로의 지체들이다. 여기에는 완전한 연결이 필요하다.

D.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다른 은사들을 사용함

6 절부터 8 절까지를 읽어보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다른 은사들을 가졌으니 그에 따라 사용할 것이니라 혹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따라, 혹 섬기는 일이면 봉사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으로, 권하는 자는 권면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회복역 참조). 6 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은혜란 무엇인가? 앞의 메시지에서 본 바와 같이 은혜는 우리의 누림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다. 거룩한 요소이자 거룩한 생명인 이 은혜가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그것은 은사가 되는 어떤 기능과 힘을 가지고 들어온다. 영적 능력인 은사는 우리가 누리는 거룩한 요소로부터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리고 그의 거룩한 요소를 여러분의 존재 안으로 받아들여 동화될 때 이 거룩한 요소로부터 어떤 은사, 기술, 혹은 능력이 나온다. 이 은사는 우리가 누려 우리 안으로 동화된 거룩한 요소에 따라 다르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누리고 동화된 은혜를 말한다. 그러므로 로마서 12 장에서 언급된 은사는 생명 안에 있는 은혜의 은사이다.

~~~

나는 생명의 성장으로부터 나오는 은사들에 대하여 조금 더 말하고 싶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 장과 14 장에서 은사에 대하여 말하기 전에

3 장에서 생명의 성장에 대하여 강하게 말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농장이요 하나님의 건축이라』(고전 3:9, 회복역 참조)고 말했다. 우리가 전에 여러 번 지적한 바와 같이 농장은 건축을 위한 재료들이 성장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들은 농장에서 성장한 산물들이다. 그런 후에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기초를 세웠고, 우리 모두가 그 위에 어떻게 건축해야 하는지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전 3:10). 우리들은 나무와 짚과 풀이 아닌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해야 한다(12 절).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3 장의 이 구절들을 종합해 보면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그들의 지방에서 교회를 건축하는 합당한 길을 말하고 있었음을 알 것이다. 교회 건축을 위한 합당한 길은 기적적인 은사가 아니라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귀한 재료들로 변화시키는 생명 안에서의 순수한 성장이다. 더욱이 바울은 자신이 그들을 먹이고 심었으며, 아볼로는 그들에게 물을 주었다고 말했다(고전 3:2-6). 먹이고 심고 물을 주는 것은 모두 성장을 위한 것이다. 성장은 변화된 합당한 재료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데 쓸모 있는 재능과 은사를 길러낼 것이다.

갓난 아기를 생각해 보라. 태어날 때 아기는 모든 필요한 기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갓난 아기에게는 생명의 성장의 필요한 분량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갓 태어났을 때에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관이 거의 없다. 어머니가 아기에게 공급하면 할수록 아기는 더 자랄 것이다. 얼마동안의 시간이 지나면 아기는 걸을 수 있게 되고,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완전히 성장하여 그의 모든 재능이 실지로 쓸모 있도록 완전히 신장될 것이다. 성장했을 때 그는 필요한 기능을 가지게 된다. 이 기능이 생명의 성장으로부터 나온 은사들이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12 장에서 말한 은사들이다.

~~~~~

4.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15 절에서 바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울 수 있으려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울 수 없고 즐거워 할 수 없는 성격으로 태어났다. 여러분은 아무리 기쁘고 즐거워도 그들에게는 표정이 없다. 그들의 표정은 천주교의 입구에 있는 마리아상과 같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 어떤 형제자매들은 이와 같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것을 모른다. 그들은 사람의 애정이 없는 돌과 같다. 그러나 교회 생활에는 감정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는 모두 적당히 감정이 있어야 하며 완전한 표현이 있어야 한다. 나는 나의 모든 감정을 합당하고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얼굴을 가지고 싶다. 우리는 돌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회 생활이라고 부를 수 없다. 우리는 애정이 충만한 산 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기를 배워야 한다.

9/3 주일

아침의 누림

창 4:26

26 셋에게서도 아들이 태어났는데, 셋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시 50:15

15 환난 날에 나를 불려라. 내가 너를 건져 내리니 네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시 81:7, 10

7 곤경 속에서 네가 부르짖기에 나 너를 건져 주었고 천둥 치는 은밀한 곳에서 너에게 응답하였으며 므리바 샘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셀라

10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네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워 주리라.

시 86:5

5 오, 주님! 주님은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며 주님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 116:12-13

12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혜택에 나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13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시 145:18

18 여호와와는 그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그분을 참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는 분.

사 12:3-4

3 그러기에 너희가 구원의 샘들에서 기뻐하며 물을 길으리라.

4 그날에 너희는 말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불려라! 그분께서 하신 일을 여러 백성 가운데 알리며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심을 일깨워 주어라.

사 55:6

6 찾을 수 있을 때에 여호와를 찾으며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불려라.

애 3:55-56

55 “오, 여호와님! 저는 아주 깊은 구덩이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56 주님은 제 음성을 들으셨으니 제 호함과 부르짖음에 주님의 귀를 막지 말아 주십시오.

행 2:21

21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송: 839 주는 토기장이요 (中:604)

1 주는 토기장이요 영광스런 건축주
나를 토기 만들고 또 나를 건축하셔
흙으로 지어진 난 새로 창조된 산 돌
나를 그릇 만들며 주님의 궁실 짓네.

2 흙으로 지으시고 생명의 순금으로
우리를 번게 하셔 진주 보석 되게 해
건축을 거침으로 사랑의 배필 됐네
주와 하나 되어서 주 맘 만족케 하네.

3 주의 원하시는 것 재료만이 아니요
재료들 건축되어 안주하시기 원해
모두의 그리스도 건축된 교회로서
주님의 영광 풍성 나타내시기 원해.

4 혼자만 영적이면 칭찬받지 못하네
단체적 생명만이 주님의 뜻 이루네
뼈와 살 떠난 지체 온전한 주 못 보여
건축된 몸이라야 주의 풍성 나타내.

5 단독적이지 않고 성도들과 건축돼
주님의 계획 따라 연결되게 하소서
영적인 은사 줄 때 자기 높이지 않고
건축 위해 다 바쳐 영광 주 나타내게.

교회전체 로마서 진리추구**1 단계-순차적 연구**

로마서 4:1-25;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37-38 장

2 단계-주제별 연구

Crucial Point: The Love of Our "Abba Father"

Scripture: 로마서 8:1-39

Assigned Reading: *Life-study of Romans*,
msgs. 20

Supplemental Reading: *none*

찬송: 30

For study questions and additional materials,
please visit the church website at

churchinnyc.org/bible-study